

2023. 8. 9.(수) 석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3년 8월 9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 자료

담당 부서: 노동 공정·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

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3쪽

농수산유통담당관	정덕영	2133-4450
도매시장관리팀장	천소영	2133-4463
유통본부장	강민규	3435-0503
유통총괄팀장	송태섭	3435-0401

### 서울시, 오이 3만개 36% 할인 판매...밥상물가 잡기 총력

- 10일(목)~12일(토) 시내 롯데마트 14곳서 오이 3만개 개당 750원에 할인판매
- 시-농수산식품공사-롯데마트-동화청과(주) 민관협력, '농산물 착한가격 프로젝트'
- 도매시장법인·마트는 마진 최소화, 시는 생산자에 물류운송비용 지원해 원가 낮춰
- 출하장려금 확대, 물가점검반 운영 등 수급안정 지원 지속, 품목 추가 선정해 할인 예정

-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, 서울시가 시민들의 밥상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오이 3만개(600박스)를 36%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10일(목) 밝혔다. 롯데마트, 동화청과,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협력해 진행하는 행사다.
-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 5종(무, 배추, 양파, 대파, 오이) 중 가격급등 품목을 선정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'농산물 착한가격 프로젝트'의 일환이다. 지난 3월 대파를 시중가격 대비 38% 할인판매한 데 이은 두 번째.

<10일(목)~12일(토) 시내 롯데마트 14곳서 오이 3만개 개당 750원에 할인판매>

- 할인판매 기간은 10일(목)부터 12일(토)까지 3일간이며, 서울 시내 롯데마트 14곳에서 오이 1개당 750원(2개 이상 구입 시)에 판매한다. 7월 말 기준 서울 시내 오이의 평균 소매가격인 1,178원과 비교하면 약 36% 저렴한 수준이다.
  - 오이의 경우 충청지역 비 피해와 강원지역 노균병 발생 등으로 공급 물량이 감소하면서 평년대비 가격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.
  
- 가락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동화청과(주)가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롯데마트에 공급하고 마진은 최소화한다. 서울시가 최상급 품질의 오이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물류운송비용을 생산자에게 지원해 원가를 낮추도록 하는 방식이다.
  
- 이 외에도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민 구매가 잦은 주요 농산물에 대한 공급 확대와 함께 물가점검반을 운영하여 지역별 가격동향 및 판매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.
  - 먼저 주요 가격 급등 품목인 오이, 애호박, 상추의 원활한 도매시장 공급을 위해 출하장려금을 기존 거래금액의 0.45%에서 최대 0.6%까지 확대 지급한다.
  - 이와 함께 물가모니터링 요원 52명을 활용하여 자치구별 전통시장 55개소의 가격급등 채소류 가격과 수급현황을 긴급 점검한다.
  - 주요 농산물에 대한 산지 거래동향, 도매시장 가격정보, 소매가격 동향 등을 농수산식품공사 누리집(www.garak.co.kr)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한다.

-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화청과 홍성호 대표는 “농가의 빠른 피해 복구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출하선도금(농산물 생산~판매과정에서 필요한 일시적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)등을 지원할 계획이다”라고 말했다.
  
-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을 추가로 선정해 저렴하게 공급하고 품목별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밥상 물가 부담을 최대한 덜겠다고 덧붙였다.
  
- 정덕영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은 “폭우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지와 무거워진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며 “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